

암세포의 비밀을 밝히겠다 ... 아산장학생 강준호

2021년 아산재단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장학생'으로 선발된 강준호 연구원은 박사 과정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된 본인을 행운아라고 했다.



“꿈이 과학자라고? 그러면 너 비행기 만드는 거야?”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은 강준호 연구원을 붙잡고 물었다. 척척박사라 불리며 친구들에게 푹푹하단 소리를 듣던 그였다. 그는 “아니, 화학자가 돼서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할 거야”라고 야무지게 친구들을 보며 답했다.

그랬던 강준호 연구원의 꿈은 자주 바뀌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바이올리니스트를 보곤 무작정 부모를 졸라 바이올린을 사기도 했다. 한동안 연주 연습에 빠져 살았다. 어린 그였지만 손마디에 굳은살이 잡히고 어깨에 파스를 붙일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 없이 뛰는 것을 좋아해 축구 선수를 꿈꿨던 적도 있다. 물론 자신의 한계를 느껴 포기했지만 말이다.

외동이었던 강준호 연구원의 부모는 언제나 그가 꿈꾸는 것을 지지했다. 무엇이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일을 찾아 스스로 헤쳐가길 바랐다. 그가 세상을 폭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음은 물론이다. 덕분에 강준호 연구원은 어떤 분야라도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강준호 연구원이 의과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한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다. 아마도 오래전, 당차게 친구들 앞에서 밝혔던 자신의 꿈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 당시와 비교해 분야가 조금은 달라졌지만 말이다. 목표가 정해지자 강준호 연구원은 누구보다 학업에 열중했다. 이후 최상위권의 성적을 한 번도 놓

치지 않았다. 고교 졸업과 동시에 그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새로운 길을 인도한 큰 아픔

2013년, 여느 때와 같이 강준호 연구원은 의과 수업을 듣던 중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업 중인 줄 알 텐데’ 고개를 갸웃거렸던 그는 계속 전화가 오자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어렵사리 양해를 구하고 강의실 바깥으로 빠져나가 휴대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 친구는 “나 위암이란다”라며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다. 강준호 연구원은 다시 강의실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싫어했던 술이었지만, 소주 한 병을 샀다. 취하고 싶었던 그는 학교와 떨어진 공원까지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 당장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없다는 사실에 슬프다가도 분함을 이기기 힘들었다.

몇 년 후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그날로 강준호 연구원은 본인의 장래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질병, 암을 연구하기로 했다. 고생했던 친구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병마로 힘들어할 사람들을 위해서 족적을 남기고 싶었다.

단일세포유전체학으로 암을 파헤친다

의과대학 졸업 후 그는 서울아산병원에서 5년간 내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그 기간에도 성실함을 인정받았다. ‘동문회장 상’을 비롯해 ‘이달의 전공의 상’ 등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지난 2010년 항암 치료의 일대 변혁을 이끈 면역관문억제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인체가 가진 면역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해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치료법인 면역관문억제제는 다양한 암에 투약하며 현재 활발한 연구 중이다.


강준호 연구원은 항암 연구에 있어 지난 2018~2019년, 2년간 서울아산병원 연구진과 함께 면역관문억제제를 담도암 환자에 투약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진행한 연구로 학술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제1 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쾌거를 얻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면역항암제의 효과가 일정하지 못한 한계점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암 연구에 대한 강준호 연구원의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생물학적인 문제를 정보과학, 컴퓨터 과학을 이용해 풀어나가는 분야인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을 통해 암 연구를 진행하고 2020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과학대학원에 박사과정으로 진학했다.

현재 강준호 연구원이 박사과정으로 연구하는 단일세포유전체학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포의 하나하나에서 발현하는 유전자를 측정해서 분석하는 기술이 녹아든 분야다. 단일세포유전체학을 통해서라면 세포 각각의 다양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러 전문가는 면역관문억제제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강준호 연구원은 이 박사과정의 연구를 통해 암 환자의 치료 효과를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진 중이다.

2021년 2월, 아산재단의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장학생’으로 선발된 강준호 연구원은 무엇보다 “부족한 자신에게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실 박사과정의 연구비만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하다. 그는 아산재단의 도움으로 박사과정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했다.

그는 단일세포유전체학을 연구해 항암 치료에 족적을 남기고, 최종적으로는 암환자들이 걱정 없이 사는 것을 꿈꾼다. 평생 숙제로 남을 그 길은 험난할 것을 본인이 잘 안다. 하지만 그는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명언을 되새기며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것이다.  글 편집부 / 사진 민영주



가까운 지인을 암으로 잃고 강준호 연구원은 암세포의 비밀을 밝히는 것으로 진로를 변경했다.